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보건학석사 학위논문

아동 자녀를 둔 아버지의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가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학전공
정 일 훈

아동 자녀를 둔 아버지의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가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 창 엽

이 논문을 보건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1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학전공
정 일 훈

정일훈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12월

위 원 장 _____ 조 원 광 (인)

부위원장 _____ 유 명 순 (인)

위 원 _____ 김 창 엽 (인)

국문초록

인간은 태어나 누구나 보살핌을 받으며, 태어난 아기에게 어머니의 온전한 돌봄은 중요하다.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상당수가 육아로 인한 우울증을 경험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이 나타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양육에 중요한 위험요인이므로 조기에 치료될 필요가 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가족친화제도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증가시킨다는 연구는 상당히 축적되어 있으나, 이들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가늠하는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 어린이가 존중받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의 온전한 보살핌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해주는 정책적 지원도 중요하므로 이들의 관계를 더욱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료는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에 참여한 대상자 중 아버지가 취업(휴직 포함) 중인 1,368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이질성을 줄이기 위해 전체연구대상자,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집단 1>, 시행하나 이용하지 않는 <집단 2>, 시행하고 이용하는 <집단 3> 등 총 4개의 연구 집단으로 나누어, 가족친화제도와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관계,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우울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남성 가족친화제도가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연구대상자에서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과 이용이 많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연구대상자와 <집단 2>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우울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앞의 두 결과를 종합하여 아버지 직장

에서 가족친화제도의 시행과 이용이 많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어머니의 우울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다음 사항을 제언하였다. 첫째, 학력이 낮고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직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경제적 차이로 사각지대에 놓이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가족친화제도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직이나 승진 준비 같은 가족친화제도의 목적 외 사용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셋째, 실제로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한 <집단 3>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우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이들과 놀아주기 같은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러 어머니의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감을 덜어주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 스스로 주 양육자로서 돌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양적인 자료만으로 이러한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질적인 방법을 통해 변수 간 관계를 더욱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가족친화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모색과 함께 개인의 의식변화가 병행된다면 가족친화제도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주요어: 가족친화제도, 어머니 우울, 아버지 양육참여, 회귀분석
학 번: 2017-27737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 2 절 이론적 배경	3
1. 어머니의 우울이 자녀 돌봄에 미치는 영향	3
2. 가족친화제도	4
(1) 가족친화제도의 개념과 발전 배경	4
(2) 가족친화제도와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관계	5
3.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우울의 관계	7
4. 선행연구 검토	10
제 3 절 연구 가설	12
제 2 장 연구 방법	15
제 1 절 자료원	15
제 2 절 변수 정의	16
1. 가족친화제도의 시행 및 이용	16
2. 아버지의 양육참여	16
3. 어머니의 우울	17
4. 통제변수	17
제 3 절 분석 방법	19
제 3 장 연구결과	21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21
제 2 절 상관관계 분석	24
제 3 절 가설의 검정	28
1. 가족친화제도 시행 및 이용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28

2.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우울	34
3. 가족친화제도 시행 및 이용과 어머니의 우울	40
제 4 장 논의 및 결론	41
제 1 절 연구결과 고찰	41
제 2 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44
제 3 절 결론 및 제언	46
참고문헌	47
부 록	54
Abstract	56

표 목 차

[표 1] 변수 정의	18
[표 2] 집단 구분	19
[표 3] 주요 변수 기술통계 및 집단 간 차이	23
[표 4] 전체연구대상자와 <집단 1>의 변수 간 상관관계	26
[표 5] <집단 2>와 <집단 3>의 변수 간 상관관계	27
[표 6]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전체> ...	30
[표 7]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집단 1>	31
[표 8]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집단 2>	32
[표 9]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집단 3>	33
[표 10]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전체>	36
[표 11]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집단 1> ...	37
[표 12]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집단 2> ...	38
[표 13]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집단 3> ...	39

그 립 목 차

[그림 1] 연구 모형	12
--------------------	----

부 록 표 목 차

[표 1] 가족친화제도 시행과 어머니의 우울 사이에서 아버지 양육 참여의 매개효과	54
[표 2] 아버지 양육참여 매개효과의 Bootstrapping 결과(제도 시행)	54
[표 3] 가족친화제도 이용과 어머니의 우울 사이에서 아버지 양육 참여의 매개효과	55
[표 4] 아버지 양육참여 매개효과의 Bootstrapping 결과(제도 이용)	55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 ‘4명 중 1명이 남성’이라고 보도¹⁾될 정도로 남성의 가족친화제도 사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경제 규모가 비슷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국회입법조사처(2021)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출생아 100명 당 남성 1.3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반면, OECD 19국 평균은 남성 43.4명으로 격차가 매우 컸다. 남성 가족친화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의 효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나, 국내에서는 남성 가족친화제도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가늠하는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수준의 패널 자료인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남성 가족친화제도의 효과를 확인해 보았다.

모든 어린이는 건강해야 할 권리가 있으며, 어린이의 건강에 어머니가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8~12%가 육아로 인한 우울증을 경험한다(O'hara, 1986). 우울은 어머니의 활력과 생활 만족도를 떨어뜨려 자녀와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방해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행동을 야기하며(Conrad & Hammen, 1993), 자녀의 정서, 인지, 행동 조직능력 등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Hoffman, Crnic, & Baker, 2006). 실제로 우울한 어머니의 자녀들이 불안과 우울, 심리적·신체적 문제가 있고 학업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Chung, 2016). 즉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양육

1)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도 늘어”(「중앙일보」, 2020.8.14.), “육아휴직 넷 중 한 명은 남성...3년 전보다 2.3배 늘어”(「한겨레」, 2021.2.10.) 등.

에 중요한 위험요인이므로 조기에 치료될 필요가 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가족친화제도가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는 상당한 수준으로 축적되어있으나, 이들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 어린이가 존중받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의 온전한 보살핌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해주는 정책적 지원도 중요하므로 이들의 관계를 더욱 연구할 필요가 있다.

선행논문을 살펴보면 남성의 가족친화제도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을 증가시키고(김진욱·강상준, 2018; 김화연·오현규·박성민, 2015; 이진경·옥선화, 2009),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우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보고된 바 있다(Fletcher, 2009; Mezulis, Hyde, & Clark, 2004; Misri, Kostaras, Fox, & Kostaras, 2000).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우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Respler-Herman, 2012), 가족친화제도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증가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원숙연, 2009; 정수빈·배은경, 2022) 오히려 경력 단절된 여성의 승진 기회를 뺏는다고 보고되는 등(Heather Antecol, Kelly Bedard, Jenna Stearns, 2016) 변수 간 관계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의 내용을 기초로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혼재된 변수 간 관계를 확인하고, 가족친화제도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남성 가족친화제도가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이질성을 줄이기 위해 전체연구대상자,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집단 1>, 시행은 하나 이용하지 않는 <집단 2>, 시행하고 이용하는 <집단 3>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 2 절 이론적 배경

1. 어머니의 우울이 자녀 돌봄에 미치는 영향

우울(Depression)이란 심리적 감기라 할 만큼 누구나 흔히 느끼는 감정으로 판단, 행동, 개인의 인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Carlson & Cantwell, 1980). 우울증은 심리적 좌절의 상태이기도 하지만 자살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심리적 장애이기도 하다(권석만, 2011).

남성보다 여성이 우울증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체적으로 여성이 임신 및 월경 그리고 출산의 과정에서 신체와 호르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우울증에 걸리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은 사회가 갖는 여성상으로 인해 의견 및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맞추려 하고, 전통적인 고정관념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 불평등, 상실 등을 경험하여 우울증에 더 쉽게 노출되기도 한다(박금자, 1999).

특히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8~12%가 우울증을 보일 만큼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은 우울증에 매우 취약하다(O'hara, 1986).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정서 중 대표적인 우울은 활력과 생활 만족도를 떨어뜨려 자녀와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방해하고 반응성을 저하해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행동을 야기한다(Conrad & Hammen, 1993). 또한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자극하고 이는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Lee & Jang, 2009). 우울한 어머니는 자녀에게 덜 공감하고, 자녀와 상호작용을 덜 하며,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다(Campbell et al, 2004; Feng et al, 2007; Siberg & Rutter, 2002). 뿐만 아니라 우울한 어머니는 부모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양육역할에 관한 요구에 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Downey et al, 1990). 또한 자녀에게 강압적인 동시에 보다 비판적이고 적대적인 짜

증을 많이 내며(Lovejoy et al, 2000), 비일관적이고 엄격한 훈육을 한다 (Leung & Slep, 2006).

2. 가족친화제도

(1) 가족친화제도의 개념과 발전 배경

일-가족 상호작용(work-family interface)에 따르면 개인에게 주어진 에너지와 시간의 제한은 일과 가정 사이에서 역할 수행의 충돌을 일으켜 가정 내 갈등을 야기하고 정신건강 및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Bosma, Stansfeld, & Marmot, 1998; Brotheridge & Lee, 2005; Mullen, Kelley, & Kelloway, 2008). 반면 일-가족 관계가 직업만족도, 스트레스, 이직 의도 등에 영향을 주고 일과 가정의 갈등을 감소시켜 개인과 가족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Grzywacz & Marks, 2000). 영역적으로 일과 가족은 분리되어 있지만, 개인은 일과 가족의 경계를 오가며 상호 연계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므로(Clark, 2000),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는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족친화제도(family-friendly system)란 직장 안에서 근로자의 가정과 일, 특히 육아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모성보호제도’, ‘일·가정양립 제도’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가족친화제도의 개념도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 먼저 Simkin과 Hillage(1992)는 가족친화제도를 생활수준과 경제 발전의 향상과 더불어 근로자가 일과 가족에 대한 책임을 양립할 수 있도록 기업이 제공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병훈과 김종성(2009)은 1980년대 이후 서구사회에서 가족 형태의 변화, 남녀 근로자의 의식변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대 등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가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표현하였으며, 정장훈 외(2011)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가의 경쟁력 저하에 대비하고 직장내 가정의

요구가 충돌하여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조직 내 근로자의 삶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정의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개인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서로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흐름 안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급속한 사회의 발전과 함께 나타난 가족 구조 및 역할의 변화 그리고 맞벌이의 증가는 일과 가정 사이의 갈등을 일으켰다. 일과 가정의 조화와 삶의 전반적인 균형을 찾고자 하는 요구가 커지자,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2007년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법률」로 개정하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가족친화제도를 확대하였다. 최근에는 저출산 위기가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면서 근로자의 육아시간 확보를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당연한 권리로 정착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19). 이러한 정부의 지원 아래 소득대체율을 대폭 상향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확대, 부부 동시 육아휴직, 3+3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 등 가족친화제도는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남성의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 것은 2000년대 이후이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맞벌이는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남성이 자녀를 돌보는 맞돌봄의 문화는 일어나지 않았고, 이러한 현상이 저출산과 돌봄의 위기를 낳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 정부는 정책적으로 노인 돌봄과 보육 등 공적인 돌봄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가족 돌봄과 자녀양육에 남성을 더 참여시키려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정수빈·배은경, 2022).

(2) 가족친화제도와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관계

직장에서의 가족친화제도와 가족친화적인 문화는 일·가족 갈등을 감소시키고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욱·강상

준, 2018; 김화연·오현규·박성민, 2015; 이진경·옥선화, 2009). 가족친화제도를 사용한 아버지들은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가족을 삶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경제적 부양이라는 아버지의 전통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자녀의 양육에 참여하고 개입하는 등 역할이 확장됐다고 보고되었다(김진욱·권진, 2015). 또한 육아휴직을 통한 자녀 돌봄 경험이 자녀양육에 대한 젠더의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적극적인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강혜경, 2013; 조운경·민웅기, 2012).

일찍부터 가족친화제도가 도입되어 자리 잡은 북유럽 국가 아버지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영국 아버지들보다 자녀양육참여 시간이 길었고 이러한 현상은 배우자가 맞벌이일 경우에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Sullivan, Coltrane, McAnnally et al., 2009). 또한 가족친화제도를 사용한 아버지들은 일터 복귀 이후에도 사용하지 않은 남성들보다 양육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Huerta, Adema, Baxter et al., 2014; Nepomnyaschy & Waldfogel, 2007).

반면 가족친화제도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변수영과 원숙연(2020)은 남성 육아휴직자 대부분이 자녀양육과 일·가족 양립을 위해서가 아닌 이직 또는 승진 등을 준비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이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정수빈과 배은경(2022)의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 11명 중 9명이 육아휴직 중 자녀 돌봄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가족들에게도 요구받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불이익을 받는 전문직 여성들을 위해 도입한 가족친화제도가 오히려 남성들에게 승진을 준비할 시간을 제공하여 여성들의 종신재직율을 감소시켰다는 연구결과도 있다(Heather Antecol, Kelly Beard, Jenna Stearns, 2016). 일과 가정의 균형과 자녀 돌봄이라는 가족친화제도의 목적 외 사용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로 이어지지 않아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얻을 수 없다.

한편 최지은과 김현경(2019)은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의 '시행'과 '이용'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의미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가족친화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직원도 직장 안에서 제도의 시행을 인식하면 언제든지 사

용할 수 있다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가족친화제도가 시행 중이라는 것 자체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임을 의미하여 모든 근로자의 일-가족 양립에 힘이 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가족친화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도의 시행만으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권혜원·권순원, 2013). Allen(2001)은 가족친화제도의 시행보다는 근로자가 직장에 얼마나 가족친화적이라고 느끼는지가 더 큰 효과를 가진다고 하였으며, Behson(2005)은 직장 안에서의 공식적 지원보다 비공식적인 지원(상사의 지지, 직무 자율성, 가족친화적인 분위기 등)이 일-가족 갈등, 이직 의도, 스트레스, 직업만족도 등에 더욱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3.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우울의 관계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2005년 최초로 50%를 넘어 2019년 53.5%, 2020년 52.8%, 2021년 53.3%로 경제위기, 코로나 19등으로 감소한 적도 있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추세이다(통계청, 2022).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맞벌이 가구는 현대 사회의 보편적 가구 형태가 되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와 가구 형태의 전환은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었다. 전통적인 아버지의 가정 내 역할은 경제적 부양과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었다면, 현대의 아버지는 자녀양육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두게 되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가족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면서 아버지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들이 주목받고 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자녀 발달에 영향을 주고(Mun, 2008; Hong & Jung, 2008), 아버지 본인의 알코올 관련 사망률, 자살률,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을 비롯한 다양한 원인의 남성 사망률을 감소시킨다고 보고되었다(Månsdotter, 2010). 특히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심리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Kim & Lee, 2005; Lee, J. S., 2003).

자녀양육을 어머니 혼자만의 책임이 아닌 부부공동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남편의 적극적인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낮추며(Quittner, Glueckauf, & Jackson, 1990),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우울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Fletcher, 2009; Mezulis, Hyde, & Clark, 2004; Misri, Kostaras, Fox, & Kostaras, 2000).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같은 어머니를 둘러싼 협조적인 분위기는 양육 스트레스로 인한 어머니의 우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Chan, 1994), 아버지의 자녀 돌봄의 도움 정도에 따라 어머니의 우울에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Lee, J. W., 2003).

허보윤과 한경자(2009)는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 우울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자녀의 출생순위, 학력, 맞벌이 여부, 월평균 가정 수입, 부부 외 아이를 돌보는 사람의 유무로 확인되었다. 부모의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면 대학교 졸업 이상인 어머니보다 우울 점수가 높았다. 가구 월평균 수입이 200만원 이하일 때, 그보다 많은 가구에 비해 어머니의 우울 점수가 높았다. 핵가족인 경우는 주변에 돌보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어머니의 우울 점수가 더 높게 나왔다.

서석원과 이대균(2014)은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2011) 자료를 사용하여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하여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 즉 자녀를 둔 어머니 우울의 주요 원인으로 여겨지는 양육스트레스가 아버지의 양육참여로 인해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우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양육참여를 하는 아버지들은 더 민감하게 아이들에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방식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었다(Mcbride et al., 2002). 또한 아버지가 자녀의 예의범절이

나 생활 태도를 지도하고 자녀와 같이 여가활동을 할 때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진다(Roggman et al., 1994).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을 낮춘다고 보고하는 많은 연구에서, 어머니가 양육 시기에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아버지가 같이 고민하고 격려해주는 정서적 지원이 어머니의 우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하였다(이유나, 2009).

반면 Respler-Herman(2012)의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했다. 주변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요구와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2세 전후의 영유아의 경우에는 자다가 보챌 때 달래주기, 목욕시키기 같이 주의가 요구되고 육체적으로 힘든 양육이 필수적이지만, 아버지들의 양육참여는 보통 이야기하기, 놀아주기 등과 같은 보조 활동에 머무르기 때문이다(김상하, 1998; Barnett & Baruch, 1987).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아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해 어머니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나타났다(LaRossa & Reitzes, 1993). 문혁준(2004)의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수유,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신체적이고 상시적인 양육 지원보다는 놀이 지도 같은 보조적인 활동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어머니의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는 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했다.

한편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는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Yoon, 2016), 아버지의 활동적이고 다양한 자극을 제공하는 신체놀이가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을 발달시키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게 하여 인지능력의 발달을 돕는다고 하였다(Choi, 2004). 또한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는 자녀의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능력과 성인기의 건강 수준을 높여준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었다(Eirini & Ann, 2003). 허선자(1993)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가치를 산소량에 비유하였는데,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의 산소량과 같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자녀와 배우자의 관계에 필수적인 요소라 하였다.

4. 선행연구 검토

가족친화제도의 목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다. 개인은 직장과 가정이 라는 두 영역을 오가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에, 직장에서 시행되는 가족친화제도는 개인과 가정, 나아가 그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직장에서 가족친화제도를 사용한 근로자는 가정 내 갈등이 감소하고 양육참여 수준이 높아졌으며(김진옥·강상준, 2018), 삶의 중심을 가족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자녀양육에 대한 젠더의식을 바꾸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강혜경, 2013).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아버지의 사망률을 감소시키며(Mánsdotter, 2010), 자녀의 자기조절 능력, 사회성, 인지능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hoi, 2004). 이처럼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자신을 비롯한 가족 전체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어머니의 우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자녀양육을 부부공동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남편의 적극적인 양육참여는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을 감소시켰으며(Fletcher, 2009), 양육 시기에 어머니가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아버지가 같이 고민하고 격려해주는 정서적 지원은 어머니의 우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이유나, 2009). 한편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양육에 필요한 상호작용과 민감성의 부족으로 온전한 부모 역할을 방해하여 자녀의 정서 발달, 인지, 행동 조직능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Hoffman, Crnic, & Baker, 2006). 실제로 우울한 어머니의 자녀들은 불안과 우울, 심리적·신체적 문제가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가졌다(Lee & Chung, 2016). 이처럼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양육에 있어 중요한 위험요인이므로 조기에 치료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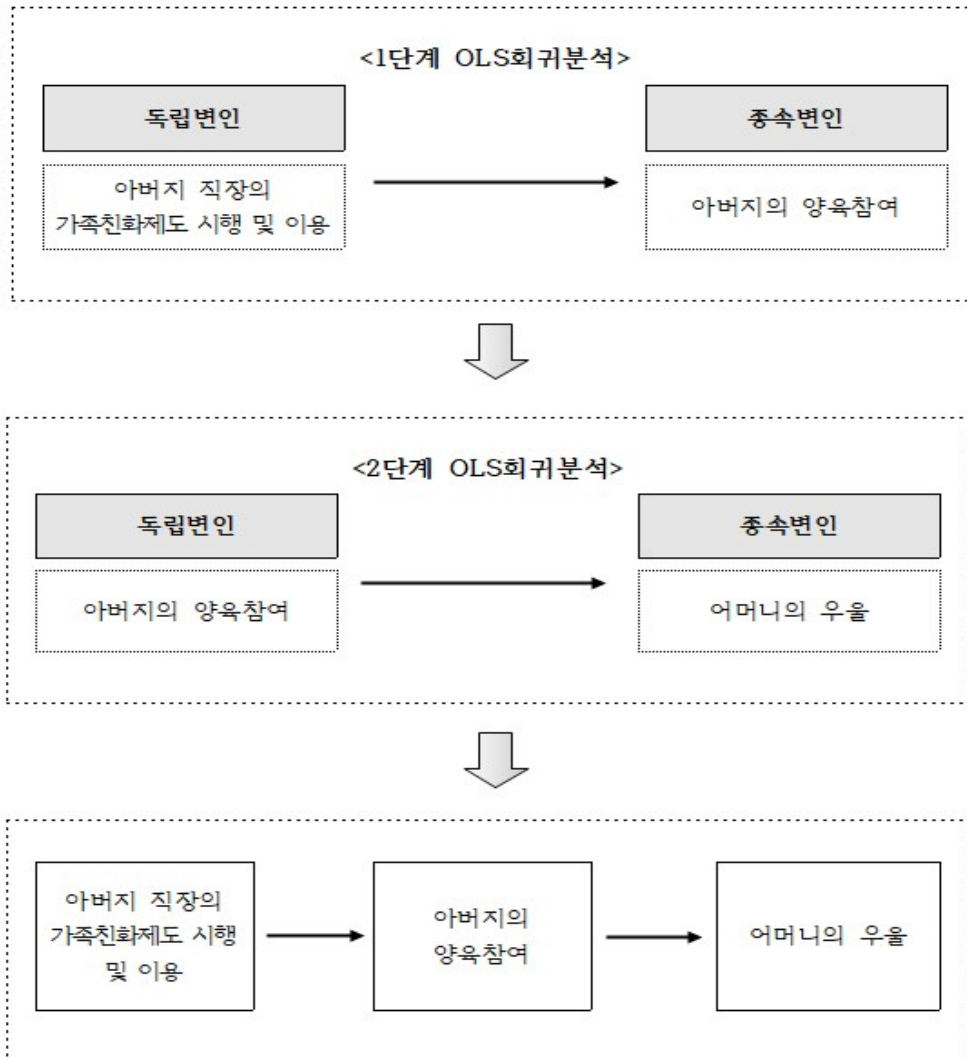
반면 가족친화제도를 본인의 이직 또는 승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변수영·원숙연, 2020) 여성의 승진 기회를 뺏는 등(Heather Antecol, Kelly Bedard, Jenna Stearns, 2016) 가족친화제도가 일과 가정의 양립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이와 놀아주기 같은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른다면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문혁준, 2004).

한편 가족친화제도가 시행되어도 사용할 수 없다면 큰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와 시행 자체만으로 근로자에게 안정감을 주어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혼재되어있어, 가족친화제도가 일과 가정 사이에서 개인과 그의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행과 이용으로 나누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족친화제도와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우울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는 있으나 이들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이질성을 줄이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의 시행과 이용 여부로 연구 집단을 구분하여 변수 간 관계를 다룬 연구 역시 진행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을 사용하여 가족친화제도와 아버지의 양육참여 그리고 어머니의 우울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던 가족친화제도의 시행과 이용 여부로 연구 집단을 나누어 변수 간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3 절 연구 가설



[그림 1] 연구 모형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족친화제도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을 높이고(김진욱·강상준, 2018; 김화연·오현규·박성민, 2015; 이진경·옥선화, 2009),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우울

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Fletcher, 2009; Mezulis, Hyde, & Clark, 2004; Misri, Kostaras, Fox, & Kostaras, 2000). 따라서 아버지 직장에서의 가족친화제도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을 높여 어머니의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시행 만으로의 효과는 거의 없을 수 있으므로(권혜원·권순원, 2013),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의 효과를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시행’과 ‘이용’ 두 변인으로 나눠 분석하였다.

또한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직장에 다니는 아버지와 가족친화제도를 시행만 하는 직장에 다니는 아버지 그리고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하는 직장에 다니는 아버지를 하나로 묶어 분석하기에는 직장의 특성, 조직문화, 개인의 특성 등에서 이질성이 상당할 수 있다. 이 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연구대상자,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집단 1], 시행하나 이용하지 않는 [집단 2], 시행하고 이용하는 [집단 3] 등 총 4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편 매개분석이 아닌 두 단계에 걸친 회귀분석으로 연구 가설을 검정한 이유는 변수 간 경로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서이다. 매개분석은 변수 간 경로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나, 가족친화제도가 어머니 우울에 미치는 직접 경로에 관한 기존 연구를 찾을 수 없었다. 즉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인지만으로 어머니의 우울이 개선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어, 매개분석으로 변수 간 관계를 검정하는 대신 두 단계에 걸친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추가로 SPSS Process Macro(Hayes, 2022)를 통한 매개분석으로 변수 간 관계를 검정하였고, 그 결과는 두 단계에 걸친 회귀분석과 같았다. 관련 자료는 부록으로 넣었다.

위와 같은 내용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과 이용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과 이용이 어머니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정식화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과 ‘이용’은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을 높일 것이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우울을 감소시킬 것이다.

셋째,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과 ‘이용’은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을 높여 어머니의 우울을 감소시킬 것이다.

제 2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자료원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ICCE)의 한국아동패널(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단일 연령 집단의 횡단적인 자료와 시간 변화에 따른 종단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2008년에 출생한 2,150명의 아동과 그들이 속한 가구 및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 구축해오고 있는 연구 자료이다(육아정책연구소, 2016). 아동패널 자료는 출생부터의 성장 과정을 장기적으로 조사하여, 각 시기에 발생하는 아동의 발달 특성, 양육실태, 육아지원기관의 기능과 효과, 이를 둘러싼 환경의 영향에 대한 국가 수준의 종단자료를 수집함에 목적이 있다(한국아동패널 연구보고서, 2015).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자료는 초등학교 1학년인 만 7세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들의 부모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친화제도와 아버지의 양육참여 그리고 어머니의 우울의 관계를 탐구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2015)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중 아버지가 취업 중(휴직 포함)인 1,368가족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IRB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의 면제를 승인받았다(IRB No. E2211/002-001).

제 2 절 변수 정의

1. 가족친화제도의 시행 및 이용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버지용 설문 중에서 가족친화제도의 시행 여부와 이용 여부를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전체 연구대상자,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집단 1],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하나 이용 안 한 [집단 2], 마지막으로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하고 이용한 [집단 3]까지 총 4개의 연구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시행 여부는 총 6가지 제도 중 각 제도를 시행한 경우 1점, 시행하지 않는 경우 0점으로 코딩한 결과를 합산하였으며 점수범위는 0~6점이다. 이용 여부는 '여성 육아휴직'을 제외한 총 5가지 제도로 아버지들이 각각의 제도를 이용한 경우 1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직장에서 시행하지 않으면 0점으로 코딩한 결과를 합산하였으며 점수 범위는 0~5점이다.

2. 아버지의 양육참여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한국아동패널이 ECLS(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 Kindergarten Cohort)로부터 사용 허가를 취득한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을 질문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아버지용 설문지를 활용하였으며, 아버지에게 자녀와 함께 10가지 행동들을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했는지 4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전혀 하지 않음' 1점, '1~2번' 2점, '3~6번' 3점, '매일 함'은 4점으로 코딩하였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모든 문항의 값을 합한 뒤 문항 수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으며, 점수 범위는 1~4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활발함을 의미한다. 크론바흐 알파 계수(Cronbach's alpha)는 0.879이다.

3. 어머니의 우울

어머니의 우울은 Kessler가 개발한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어머니용 설문 자료를 활용하였다. 문항 수는 총 6문항으로 척도 수준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안 느낌’ 1점, ‘별로 안 느낌’ 2점, ‘종종 느낌’ 3점, ‘대체로 느낌’ 4점, ‘항상 느낌’ 5점으로 코딩하였다. 어머니의 우울은 모든 문항의 값을 합한 뒤 문항 수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으며, 점수범위는 1~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크론바흐 알파 계수(Cronbach’s alpha)는 0.919이다.

4.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선행논문을 참고하여 아동의 성별, 부모의 나이, 부모의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포함한다. 아동 성별은 남아 1, 여아 0으로 이분화 하였고, 부모의 나이는 연속변수로 활용하였으며, 교육수준은 무학(1), 초등학교 졸업(2), 중학교 졸업(3), 고등학교 졸업(4), 2~3년제 대학 졸업(5), 4년제 대학교 졸업(6), 대학원 졸업(7)으로 코딩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백만 원 단위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포함한 변수를 정리하면 [표 1]와 같다.

[표 1] 변수 정의

분류	변수명	코딩
육아지원 제도/방식	여성의 육아휴직	시행=1
	남성의 육아휴직	시행 안 함=0
	가족돌봄휴직	(점수범위= 0~6점)
	유연근무제	이용=1,
	대체인력풀 운영	이용 안 함=0
	가족친화관련프로그램	(점수범위=0~5*점) * 여성 육아휴직 제외
아버지의 양육참여 (아이와 함께하는 것)	이야기를 해준다	전혀 하지 않음=1점 1~2번=2점 3~6번=3점 매일 함=4점 (점수범위= 1~4점)
	노래를 부른다	
	미술이나 만들기를 한다	
	집안일을 함께 한다	
	퍼즐이나 게임을 한다	
	과학 놀이를 한다	
	조립용 완구를 가지고 논다	
	운동을 한다	
	읽기, 쓰기와 숫자를 익힌다	
책을 읽어준다		
어머니의 우울 (지난 30일 동안)	불안하셨습니까?	전혀 안 느낌=1 별로 안 느낌=2 종종 느낌=3 대체로 느낌=4 항상 느낌=5 (점수범위= 1~5점)
	무기력하셨습니까?	
	안절부절 못하셨습니까?	
	매사에 힘이 드셨습니까?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셨습니까?	
통제변수		
아동의 성별	남아=1, 여아=0	
월평균 가구소득	백만 원 단위	
부모의 교육수준	무학(1), 초등학교 졸업(2), 중학교 졸업(3), 고등학교 졸업(4), 2~3년제 대학 졸업(5), 4년제 대학교 졸업(6), 대학원 졸업(7)	
부모의 나이	가산변수 그대로 사용	
자녀의 수	가산변수 그대로 사용	

제 3 절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 패키지로 SPSS 26.0를 사용하였다. 시행과 이용 여부에 따른 연구 집단의 이질성을 줄이기 위해 [표 2]와 같이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순서는 첫째, 연구 변수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둘째, 각 변수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가족친화제도와 아버지의 양육참여,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우울을 두 단계로 나누어 OLS 회귀분석을 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가족친화제도가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 2] 집단 구분

구분	시행 및 이용 여부	설명
전체	-	아버지가 취업 중(휴직 포함)인 1,368가족
<집단 1>	시행 X 이용 X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없음
<집단 2>	시행 O 이용 X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가 있으나 이용 안 함
<집단 3>	시행 O 이용 O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가 있고 이용함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외생변수(제3의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추정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1\text{단계} : Y &= \beta_0 + \beta_1 X_1 \\
 2\text{단계} : Y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
 &\vdots \\
 i\text{단계} : Y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cdots + \beta_i X_i
 \end{aligned}$$

이론적 근거에 따라 단계별로 한 개 혹은 여러 개의 독립변수를 투입하여 종속변수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검정하였다. 연구 가설 1에서 종속변수 Y 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로 단계별로 같은 값이다. 회귀분석 1단계에서 통제변수로 아버지의 학력, 나이, 아동 성별, 자녀의 수, 가구소득을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는 가족친화제도의 시행을 3단계에서는 가족친화제도의 이용을 투입하였다. 같은 분석 방법을 반복하여 집단별로 가족친화제도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였다.

연구 가설 2에서 종속변수 Y 는 어머니의 우울로 단계별로 같은 값이다. 회귀분석 1단계에서 통제변수로 어머니의 나이, 학력, 가구소득, 아동 성별, 자녀의 수를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집단별로 구분하여 검정하였다.

제 3 장 연구결과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전체연구대상자,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집단 1>, 시행은 하나 이용하지 않는 <집단 2>, 시행하고 이용하는 <집단 3> 등 총 4개의 연구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집단 1> 528명(38.6%),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하나 이용하지 않는 <집단 2> 702명(51.3%),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하고 이용하는 <집단 3> 138명(10.1%)으로 전체 1,368명을 기준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전체연구대상자와 집단별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체연구대상자는 6개 가족친화제도 중 현재 자신의 직장에서 평균 1.77개(SD 1.97)의 제도가 시행 중이라고 응답하였고, <집단 2>는 2.69개(SD 1.73), <집단 3>은 3.84개(SD 1.57)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하는 집단이 시행하는 가족친화제도의 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연구대상자의 제도별 시행률은 여성육아휴직 57.8%, 남성육아휴직 36.2%, 가족돌봄휴직, 21.0%, 유연근무제 24.2%, 대체인력풀 18.9%, 가족친화관련프로그램 18.4%이었다. <집단 2>의 경우, 여성육아휴직 95.1%, 남성육아휴직 55.1%, 가족돌봄휴직 30.6%, 유연근무제 34.9%, 대체인력풀 27.6%, 가족친화관련프로그램 25.6%로 나타났다. <집단 3>의 경우, 여성의 육아휴직 89.8%, 남성의 육아휴직 78.9%, 가족돌봄휴직 52.8%, 유연근무제 63.0%, 대체인력풀 47.1%, 가족친화관련프로그램 52.1%로 나타나, <집단 3>이 여성육아휴직을 제외한 나머지 5개의 가족친화제도의 시행률이 <집단 2>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연구대상자의 여성육아휴직을 제외한 5개 가족친화제도 중에서 이용한 제도의 개수는 0.18개(SD 0.67)에 불과하였다. 약 90%인 아버지 대부분이 이용한 가족친화제도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제도별 이용률은 남

성육아휴직 4.6%, 가족돌봄휴직 2.7%, 유연근무제 4.8%, 대체인력풀 2.2%, 가족친화관련 프로그램 3.8%였다. <집단 3>의 경우 5개의 가족친화제도 중 평균 1.81개(SD 1.23)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별 이용률은 남성육아휴직 46.3%, 가족돌봄휴직 26.8%, 유연근무제 47.8%, 대체인력풀 22.4%, 가족친화관련 프로그램 38.4%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집단의 이용 정도와 큰 차이를 보였다.

전체연구대상자의 양육참여는 1~4점 범위 중 평균 1.85점(SD 0.48)으로, 자녀들과의 다양한 활동을 같이하는 빈도가 일주일에 1~2번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참여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집단은 <집단 2>로 평균 1.86점(SD 0.47)이었다. 반면 <집단 3>의 아버지의 양육참여 점수는 1.70점(SD 0.73)으로 이는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집단 1>의 1.81점(SD 0.47)에 비해서도 낮은 점수였다.

어머니의 우울은 1~5점 범위 중 전체 대상자는 평균 1.81점(SD 0.73), <집단 1>은 평균 1.83점(SD 0.76), <집단 2>는 1.80점(SD 0.71)으로 나타났다. <집단 3>은 평균 1.76점(SD 0.69)으로 어머니의 우울이 가장 낮았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령은 집단별 비슷하였다. 전체연구대상자를 기준으로 부의 평균 연령은 40.27세이고 모의 평균 연령은 37.82세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집단 간 차이는 비교적 뚜렷하였는데, 4년제 대학교 졸업자의 비율은 <집단 2>의 아버지 48.1% 어머니 43.3%, <집단 3>의 아버지 41.6%, 어머니 42.3%, <집단 1>의 아버지 35.9%, 어머니 30.6% 순이었다.

아동의 성별은 전체 대상자와 집단별 남아와 여아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자녀의 수는 <집단 3>이 2.21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모든 집단이 평균 약 2명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연구대상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평균 467.33만원(SD 198.42)으로 나타났다. <집단 3>이 485만원(SD 220)으로 가장 높았고, <집단 2>가 481만원(SD 193)나타났다. <집단 1>이 443.69만원(SD 196.15)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이 가장 낮았다.

[표 3] 주요 변수 기술통계 및 집단 간 차이

변수	전체 (N=1,368)	<집단 1> 시행 X 이용 X (n=528)	<집단 2> 시행 O 이용 X (n=702)	<집단 3> 시행 O 이용 O (n=138)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부 직장 가족친화제도 시행 개수 (0-6)	1.77(1.97)	-	2.69(1.73)	3.84(1.57)
부 가족친화제도 이용 개수(0-5)	0.18(0.67)	-	-	1.81(1.23)
부 양육참여 (1-4)	1.85(0.48)	1.81(0.47)	1.86(0.47)	1.70(0.73)
모 우울(1-5)	1.81(0.73)	1.83(0.76)	1.8(0.71)	1.76(0.69)
부 연령	40.27(3.91)	40.33(4.07)	40.2(3.77)	40.0(4.04)
모 연령	37.82(3.62)	37.74(3.86)	37.9(3.47)	37.4(3.42)
부 교육수준(1-7)	5.37(0.98)	5.14(0.96)	5.53(0.96)	5.44(0.99)
모 교육수준(1-7)	5.21(0.92)	5.02(0.89)	5.34(0.92)	5.29(0.90)
아동 성별 (0=여, 1=남)	0.51(0.50)	0.49(0.50)	0.51(0.49)	0.54(0.49)
자녀 수	2.19(0.66)	2.19(0.66)	2.18(0.64)	2.21(0.74)
월평균 가구소득(백만원)	467.33(198.42)	443.69(196.15)	481.(193.)	485.(220.)

제 2 절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아버지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시행, 아버지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이용, 아버지의 양육참여, 어머니의 우울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4]과 [표 5]에 제시하였다.

아버지의 직장 안에서 시행한 가족친화제도 개수는 전체연구대상자($r=0.357, p<.001$)와 <집단 3>($r=0.478, p<.001$)에서 이용한 가족친화제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용한 가족친화제도 개수는 전체연구대상자에게서만 아버지의 양육참여($r=0.077,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전체연구대상자($r=-0.107, p<.001$)와 <집단 2>($r=-0.114, p<.001$)에서만 어머니의 우울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집단 1>과 <집단 3>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우울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았다.

한편 전체연구대상자의 통제변수와 다른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가족친화제도의 개수는 아버지의 교육수준($r=0.150, p<.001$), 어머니의 교육수준($r=0.145, p<.001$), 월평균 가구소득($r=0.098,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아버지의 교육수준($r=0.075, p<.01$), 어머니의 교육수준($r=0.071,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어머니의 우울은 아버지의 교육수준($r=-0.079, p<.01$), 어머니의 교육수준($r=-0.084, p<.01$), 월평균 가구소득($r=-0.075, p<.01$)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집단 1>의 통제변수와 다른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아버지의 교육수준($r=0.102, p<.05$)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어머니의 우울은 아버지의 교육수준($r=-0.139, p<.01$), 어머니의 교육수준($r=-0.138, p<.01$), 월평균 가구소득($r=-0.129, p<.01$)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집단 2>의 통제변수와 다른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집단 3>의 통제변수와 다른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이용과 어머니의 교육수준($r=-0.192$, $p<.05$)이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4] 전체연구대상자와 <집단 1>의 변수 간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 부 직장 가족친화제도 시행											
2. 부 가족친화제도 이용	0.357***										
3. 부 양육참여	0.072**	0.077**		-0.083	-0.006	0.022	0.102*	0.068	-0.021	-0.045	0.035
4. 모 우울	-0.032	-0.039	-0.107***		-0.081	-0.040	-0.139**	-0.138**	0.045	-0.014	-0.129**
5. 부 연령	-0.009	-0.001	-0.005	-0.022		0.675***	0.031	0.013	0.069	0.067	0.003
6. 모 연령	0.022	-0.015	0.005	0.008	0.672***		0.127**	0.097*	0.093*	0.039	0.054
7. 부 교육수준	0.150***	-0.005	0.075**	-0.079**	0.085**	0.157***		0.580***	0.037	-0.025	0.263***
8. 모 교육수준	0.145***	-0.009	0.071**	-0.084**	0.042	0.110***	0.617***		0.017	-0.021	0.311***
9. 아동 성별(0=여, 1=남)	0.016	0.010	-0.011	0.003	-0.003	0.017	0.000	-0.014		-0.071	-0.021
10. 자녀 수	0.042	0.033	-0.024	0.019	0.119***	0.068*	-0.069*	-0.067*	-0.020		0.001
11. 월평균 가구소득	0.098***	0.012	0.023	-0.075**	0.052	0.090**	0.281***	0.328***	-0.046	-0.041	

* p<.05, ** p<.01, *** p<.001

주: 대각선 하단은 전체연구대상자(n= 1,368), 대각선 상단은 <집단 1>의 연구대상자(n= 528) 결과임

[표 5] <집단 2>와 <집단 3>의 변수 간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 부 직장 가족친화제도 시행		0.478***	0.109	-0.050	-0.026	0.009	0.109	0.070	-0.074	0.121	0.045
2. 부 가족친화제도 이용			0.130	-0.116	0.082	0.061	-0.139	-0.192*	-0.040	0.112	-0.060
3. 부 양육참여	0.022			-0.150	-0.034	-0.036	0.127	0.129	0.029	-0.078	0.119
4. 모 우울	-0.016		-0.114**		-0.083	0.012	-0.007	-0.140	0.043	-0.017	-0.032
5. 부 연령	0.007		0.005	0.042		0.644***	0.091	0.019	0.128	0.193*	0.156
6. 모 연령	0.038		0.001	0.051	0.675***		0.222**	0.094	0.132	0.031	0.205*
7. 부 교육수준	0.026		0.026	-0.037	0.134***	0.168***		0.580***	0.024	-0.088	0.144
8. 모 교육수준	0.048		0.044	-0.025	0.074	0.122**	0.627**		0.063	-0.189*	0.202*
9. 아동 성별(0=여, 1=남)	-0.002		-0.017	-0.036	-0.088*	-0.070	-0.044	-0.061		-0.054	0.012
10. 자녀 수	0.062		0.004	0.056	0.146***	0.101**	-0.102**	-0.078*	0.026		-0.190*
11. 월평균 가구소득	0.058		-0.020	-0.036	0.071	0.094*	0.302***	0.350***	-0.084*	-0.037	

* p<.05, ** p<.01, *** p<.001

주: 대각선 하단은 <집단 2>의 연구대상자(n= 702), 대각선 상단은 <집단 3>의 연구대상자(n= 138) 결과임

제 3 절 가설의 검정

1. 가족친화제도 시행 및 이용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전체연구대상자의 아동 성별, 가구소득, 부 학력, 자녀 수, 부 나이, 제도 시행, 제도 이용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회귀모형 1단계($F=1.709$,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단계($F=2.462$, $p<.05$)와 3단계($F=2.824$,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단계에서 1.1% (수정된 R 제곱은 0.06%)로 나타났고, 3단계에서는 1.5%(수정된 R 제곱은 0.09%)로 나타났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923으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정 결과, 1단계에서는 부의 학력($\beta=0.071$, $p<.05$)이 유의하게 나타났고, 2단계에서는 부의 학력($\beta=0.061$, $p<.05$)과 가족친화제도 시행($\beta=0.069$, $p<.05$)이, 3단계에서는 부의 학력($\beta=0.065$, $p<.05$)과 가족친화제도 이용($\beta=0.065$, $p<.05$)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즉 부의 학력, 가족친화제도의 시행 정도와 이용 정도가 높아질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집단 1>을 대상으로 아동 성별, 가구소득, 부 학력, 자녀 수, 부 나이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한 결과는 [표 7]과 같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331$, $p>.05$).

<집단 2>를 대상으로 아동 성별, 가구소득, 부 학력, 자녀 수, 부 나이, 가족친화제도 시행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한 결과는 [표 8]과 같고, 1단계와 2단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1

단계, $F=0.242$, $p>.05$ / 2단계, $F=0.289$, $p>.05$).

<집단 3>을 대상으로 아동 성별, 가구소득, 부 학력, 자녀 수, 부 나이, 가족친화제도 시행, 가족친화제도 이용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회귀모형은 1단계($F=0.920$, $p>.05$), 2단계($F=1.022$, $p>.05$), 3단계($F=1.183$, $p>.0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6]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전체>

종속변수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β	t	p	B	β	t	p	B	β	t	p
아버지의 양육참여	(절편)	1.761		11.526***	<.001	1.758		11.525***	<.001	1.752		11.504***	<.001
	부 학력	0.035	0.071	2.480*	0.013	0.030	0.061	2.124*	0.034	0.032	0.065	2.254*	0.024
	부 나이	-0.001	-0.010	-0.349	0.727	-0.001	-0.007	-0.265	0.791	-0.001	-0.008	-0.278	0.781
	아동 성별	-0.014	-0.015	-0.547	0.584	-0.016	-0.017	-0.608	0.543	-0.016	-0.017	-0.615	0.538
	자녀의 수	0.000	0.003	0.116	0.908	-0.000	-0.001	-0.038	0.970	-0.000	-0.001	-0.020	0.984
	가구소득	-0.019	-0.026	-0.949	0.343	-0.022	-0.030	-1.098	0.272	-0.023	-0.031	-1.129	0.259
	제도 시행					0.017	0.069	2.489*	0.013	0.011	0.045	1.519	0.129
	제도 이용									0.046	0.065	2.225*	0.026
	F			1.709(p<.13)				2.462(p<.05)				2.824(p<.05)	
	R ²			0.006				0.011				0.015	
ADJ R ²			0.003				0.006				0.009		

* p<.05, ** p<.01, *** p<.001

[표 7]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집단 1>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t	p
아버지의 양육참여	(절편)	1.698		7.125	0.000
	자녀의 수	-0.038	-0.054	-1.224	0.222
	부 나이	0.000	0.006	0.130	0.897
	부 학력	0.045	0.092	2.026	0.043
	아동 성별	-0.033	-0.036	-0.806	0.421
	가구소득	-0.000	-0.004	-0.097	0.923

F=1.331(p>.05), R² =0.013, ADJR²=0.003, D-W=1.992

* p<.05, ** p<.01, *** p<.001

[표 8]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집단 2>

종속변수	독립변수	모형1				모형 2			
		B	β	t	p	B	β	t	p
	(절편)	1.814		8.232	0.000	1.799		8.127	0.000
	아동 성별	-0.017	-0.018	-0.463	0.644	-0.017	-0.018	-0.466	0.641
	부 나이	0.000	0.000	0.008	0.994	0.000	0.001	0.013	0.990
아버지의 양육참여	부 학력	0.017	0.035	0.859	0.391	0.017	0.034	0.842	0.400
	가구소득	-0.000	-0.029	-0.732	0.464	-0.000	-0.031	-0.769	0.442
	자녀의 수	-0.001	-0.002	-0.047	0.962	-0.003	-0.004	-0.099	0.921
	제도 시행					0.008	0.028	0.725	0.469
	F		0.242(p>.05))				0.289(p>.05)		
	R ²		0.002				0.003		
	ADJR ²		-0.006				-0.006		

* p<.05, ** p<.01, *** p<.001

[표 9]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집단 3>

종속변수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β	t	p	B	β	t	p	B	β	t	p
	(절편)	1.841		3.758***	0.000	1.735		3.495**	0.001	1.717		3.471**	0.001
	아동 성별	0.022	0.021	0.240	0.810	0.028	0.027	0.309	0.758	0.031	0.030	0.347	0.729
	부 나이	-0.007	-0.057	-0.627	0.532	-0.006	-0.049	-0.545	0.587	-0.009	-0.068	-0.747	0.457
아버지의 양육참여	부 학력	0.058	0.112	1.286	0.201	0.052	0.099	1.130	0.260	0.066	0.128	1.429	0.156
	가구소득	0.000	0.112	1.251	0.213	0.000	0.105	1.174	0.242	0.000	0.116	1.288	0.200
	자녀의 수	-0.026	-0.038	-0.417	0.678	-0.037	-0.054	-0.597	0.552	-0.037	-0.053	-0.586	0.559
	제도 시행					0.035	0.108	1.230	0.221	0.011	0.033	0.323	0.747
	제도 이용									0.061	0.147	1.449	0.150
	F		0.920(p>.05)				1.022(p>.05)				1.183(p>.05)		
	R ²		0.034				0.045				0.060		
	AdjR ²		-0.003				0.001				0.009		

* p<.05, ** p<.01, *** p<.001

2.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우울

전체연구대상자의 아버지의 양육참여, 모 나이, 모 학력, 가구소득, 아동 성별, 자녀의 수가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회귀모형은 1단계($F=3.226, p<.01$)와 2단계($F=5.329, p<.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1.2%(수정된 R제곱은 0.8%), 2단계에서는 2.3%(수정된 R제곱은 1.9%)로 나타났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979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도 모두 10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정 결과, 1단계에서는 모의 학력($\beta=-0.069, p<.05$)과 가구소득($\beta=-2.201, p<.05$)이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모의 학력($\beta=-0.062, p<.05$), 가구소득($\beta=0.064, p<.05$), 아버지의 양육참여($\beta=-0.107, p<.001$)가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모의 학력, 가구소득,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아질수록 어머니의 우울이 낮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집단 1>을 대상으로 검정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회귀모형은 1단계($F=3.566, p<.01$)와 2단계($F=3.596, p<.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3.3%(수정된 R 제곱은 2.4%)로 나타났고, 2단계에서는 4%(수정된 R 제곱은 2.9%)로 나타났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2.082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도 모두 10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정 결과, 1단계에서는 모 학력($\beta=-0.107, p<.05$)과 가구소득($\beta=-0.108, p<.05$)이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2단계에서도 모의 학력($\beta=-0.102, p<.05$)과 가구소득($\beta=-0.107, p<.05$)이 부(-)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모의 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어머니의 우울이 낮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집단 2>를 대상으로 검정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회귀모형 1단계 ($F=1.216,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단계($F=2.552,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2%(수정된 R 제곱은 1.3%)로 나타났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2.005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정 결과, 통제변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양육참여($\beta=-0.114, p<.01$)가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아질수록 어머니의 우울은 낮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집단 3>을 대상으로 검정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회귀모형 1단계 ($F=0.752, p>.05$)와 2단계($F=1.167, p>.0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나오지 않았다.

[표 10]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전체>

종속변수	독립변수	모형1				모형 2			
		B	β	t	p	B	β	t	p
	(절편)	2.009		8.641***	0.000	2.287		9.464***	0.000
	모 나이	0.005	0.024	0.867	0.386	0.005	0.023	0.858	0.391
	모 학력	-0.055	-0.069	-2.398*	0.017	-0.049	-0.062	-2.145*	0.032
어머니의 우울	가구소득	-0.000	-0.063	-2.201*	0.028	-0.000	-0.064	-2.227*	0.026
	아동 성별	-0.003	-0.002	-0.068	0.946	-0.004	-0.003	-0.103	0.918
	자녀의 수	0.010	0.009	0.348	0.728	0.008	0.007	0.260	0.795
	아버지의 양육참여					-0.161	-0.107	-3.959***	0.000
	F		3.226(p<.01)				5.329(p<.001)		
	R ²		0.012				0.023		
	ADJR ²		0.008				0.019		

* p<.05, ** p<.01, *** p<.001

[표 11]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집단 1>

종속변수	독립변수	모형1				모형 2			
		B	β	t	p	B	β	t	p
	(절편)	2.657		7.172***	0.000	2.881		7.432***	0.000
	아동 성별	0.063	0.042	0.959	0.338	0.060	0.039	0.906	0.365
	모 나이	-0.004	-0.020	-0.466	0.642	-0.004	-0.019	-0.433	0.665
어머니의 우울	모 학력	-0.090	-0.107	-2.335*	0.020	-0.086	-0.102	-2.235*	0.026
	가구소득	-0.000	-0.108	-2.358*	0.019	-0.000	-0.107	-2.343*	0.020
	자녀의 수	-0.025	-0.022	-0.516	0.606	-0.031	-0.027	-0.627	0.531
	아버지의 양육참여					-0.133	-0.083	-1.911	0.057
	F		3.566(p<.01)				3.596(p<.01)		
	R ²		0.033				0.040		
	ADJR ²		0.024				0.029		

* p<.05, ** p<.01, *** p<.001

[표 12]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집단 2>

종속변수	독립변수	모형1				모형 2			
		B	β	t	p	B	β	t	p
	(절편)	1.500		4.525***	0.000	1.798		5.229***	0.000
	아동 성별	-0.059	-0.041	-1.077	0.282	-0.061	-0.043	-1.123	0.262
	모 나이	0.010	0.048	1.250	0.212	0.010	0.048	1.239	0.216
어머니의 우울	모 학력	-0.018	-0.023	-0.568	0.570	-0.012	-0.016	-0.395	0.693
	가구소득	-0.000	-0.034	-0.844	0.399	-0.000	-0.039	-0.968	0.334
	자녀의 수	0.055	0.050	1.297	0.195	0.056	0.051	1.331	0.184
	아버지의 양육참여					-0.169	-0.114	-3.027**	0.003
	F		1.216(p>.05)				2.552(p<.05)		
	R ²		0.009				0.022		
	ADJR ²		0.002				0.013		

* p<.05, ** p<.01, *** p<.001

[표 13]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집단 3>

종속변수	독립변수	모형1				모형 2			
		B	β	t	p	B	β	t	p
	(절편)	2.228		3.021**	0.003	2.623		3.432**	0.001
	아동 성별	0.091	0.067	0.766	0.445	0.098	0.072	0.831	0.407
	모 나이	0.006	0.028	0.317	0.752	0.003	0.017	0.197	0.844
어머니의 우울	모 학력	-0.108	-0.143	-1.596	0.113	-0.095	-0.126	-1.412	0.160
	가구소득	-0.000	-0.051	-0.565	0.573	-0.000	-0.037	-0.404	0.687
	자녀의 수	-0.027	-0.030	-0.337	0.737	-0.032	-0.035	-0.393	0.695
	아버지의 양육참여					-0.205	-0.155	-1.783	0.077
	F		0.752(p>.05)				1.167(p>.05)		
	R ²		0.028				0.051		
	ADJR ²		-0.009				0.007		

* p<.05, ** p<.01, *** p<.001

3. 가족친화제도 시행 및 이용과 어머니의 우울

연구문제 1의 검정을 위하여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과 이용이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집단별 구분에서는 유의미한 값이 나오지 않았지만, 전체연구대상자에서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과 이용은 여러 사회인구학적 통제변수를 고려했을 때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2의 검정을 위하여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연구대상자와 <집단 2>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우울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로는 어머니의 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우울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직장에서 가족친화제도를 더 많이 시행하고 아버지들이 더 많은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할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어머니의 우울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4 장 논의 및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고찰

최근 자녀 맞돌봄 문화 확산과 저출산 심화 그리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강조하는 흐름 속에서 다양한 가족친화제도가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남성들의 가족친화제도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남녀를 모두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제도임에도 기존 연구의 중심은 대부분 여성이었으며 남성의 가족친화제도의 효과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에 참여한 대상자 중 아버지가 취업(휴직 포함) 중인 1,368가족을 대상으로, 전체연구대상자,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집단 1>, 시행은 하나 이용하지 않는 <집단 2>, 시행하고 이용하는 <집단 3>으로 구분하여,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 및 이용 수준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가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연구대상자의 직장에서는 제시된 6개의 가족친화제도 가운데 평균 1.77개를 시행하고 있었고, <집단 2>는 평균 2.69개, <집단 3>에서는 평균 3.84개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하는 집단에서 시행하는 가족친화제도의 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도별 시행률은 모든 집단에서 여성육아휴직과 남성육아휴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두 가지 가족친화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가족친화제도에서 <집단 2>는 25~30%, <집단 3>은 47~63%로 시행률의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직장내 제도를 시행하지만 유명무실하여 실제로 이용할 수 없는 직장에서는 다양한 가족친화제도의 시행에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연구대상자에서 여성육아휴직을 제외한 가족친화제도 5개 중 이용한 제도의 개수는 평균 0.18개에 불과했다. 전체 아버지 중 약 90%의 아버지가 이용한 가족친화제도가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수준은 낮은 편이었다. <집단 3>의 경우 평균 1.81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도별 이용률은 유연근무제, 남성육아휴직, 가족친화프로그램, 가족돌봄휴직, 대체인력풀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1~4점 범위 중 전체 아버지가 평균 1.85점으로, 자녀들과의 다양한 활동을 같이하는 빈도가 일주일에 1~2번 미만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아버지

의 양육참여 점수는 예상과 달리 <집단 2>가 1.86, <집단 1>이 1.81, <집단 3>이 1.70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친화제도가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을 높여준다는 김진욱, 강상준(2018)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였다. 위 결과는 남성들이 육아휴직 기간에 자녀 돌봄을 하지 않고 이직 또는 승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용한다는 변수영, 원숙연(202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데, 일과 가족의 균형, 자녀 돌봄, 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가족친화제도의 사용은 가족친화제도의 본래 목적과 어긋나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어머니의 우울은 1~5점 범위 중 <집단 3>이 1.76점으로 가장 낮았고, 그다음으로 <집단 2>와 <집단 1>의 순서로 어머니의 우울이 낮았다. 이는 집단별 사회경제적 특성에 기인하였거나,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는 낮을지라도 가족친화제도를 시행 또는 이용하는 집단의 가족친화적인 직장 문화가 일-가족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Grzywacz & Marks, 2000). 또는 Clark(2000)의 연구에 따르면 근로자는 일과 가족의 경계에서 상호 연계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시행되는 제도를 인식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느끼는 안정감(최지은, 김현경, 2019)이 그의 배우자에게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일 수도 있다. 추가로 가족친화제도가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를 분석해 보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나오지는 않았다.

전체연구대상자에서 아버지의 나이가 어머니의 나이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남성 40.27세, 여성 37.82세), 이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남자와 적은 여자가 결혼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월평균 가구소득(평균 467만원)은 <집단 1>이 가장 낮았다. 즉 학력이 낮고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가족친화제도를 시행조차 하지 않는 비(非) 가족친화적인 직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경제적 차이로 인해 직장 안에서 가족친화제도를 누리는 데 불평등이 야기된다면,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육아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일-생활 균형 지원정책에서 소외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비교적 간단한 조사 질문에 기반을 둔 양적 자료만으로 이러한 특성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학력과 가구소득 그리고 직장문화의 관계를 규명하기는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구한다.

연구문제 1 분석 결과, 전체연구대상자에게서만 여러 사회인구학적 통제변수를 고려했을 때 가족친화제도 시행과 이용이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을 증가시키는데 약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친화제도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집단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시행률과 이용률이 낮고 자료원의 한계로 아버지 개인 특성을 포함하지 못했거나, 아버지들의 가족친화제도의 목적 외 사용이 많아 아버지의 양육참여로 이어지지 못해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정수빈, 배은경, 2022). 통제변수 중에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연구대상자에서 가족친화제도의 시행이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직원도 직장 안에서 제도의 시행을 인식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가족친화제도가 시행 중이라는 것 자체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임을 의미하여 모든 근로자의 일-가족 양립에 힘이 될 수 있다는 최지은·김현경(2019)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연구문제 2 분석 결과, 전체연구대상자와 <집단 2>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우울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하는 <집단 3>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우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자료원의 한계 때문이거나,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이들과 놀아주기, 이야기하기 등과 같은 보조 활동에 머물러 어머니의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는 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문혁준, 2004). 즉 더 많은 남성이 가족친화제도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사회에서 자녀 돌봄에 대한 남성의 전통적 역할이 변화했고 맞돌봄 문화가 확산하는 것으로 낙관하기는 어렵다. 통제변수로는 어머니의 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우울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1과 2의 결과를 종합하면 아버지의 직장에서 가족친화제도의 시행과 이용이 많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어머니의 우울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시행과 이용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김진욱, 강상준, 2018; Huerta et al., 2014)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허보윤, 한경자, 2009; Quittner, Glueckauf, & Jackson, 1990)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축적되어있다. 본 연구는 국가수준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변수 간 혼재되어있는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 연구대상자의 이질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의 시행과 이용 여부로 4개의 연구 집단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한 점,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아버지의 양육참여 그리고 어머니의 우울 관계를 밝혔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를 유의미하게 확대했다.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형 자료를 활용해 변인 간 연관성을 탐구하였다. 횡단연구는 한 시점의 자료만 사용하여, 장기간 반복해서 측정하는 종단연구에 비해 인과관계가 약하게 나타날 수 있다. 아버지의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에 질문한 차수가 8차년도가 유일하여 횡단연구로 진행하였지만, 향후 가족친화제도의 시행과 이용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종단연구를 진행한다면 더욱 신뢰도 높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만 7세 자녀를 둔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는데, 향후 어머니가 우울증에 더 쉽게 노출되는 기간을 특정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출산 후 급격한 환경 변화와 신체 변화, 자녀 돌봄 부담감 등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이 우울증에 더 취약하므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자료원의 한계로 아버지의 특성을 충분히 세분화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집단별 효과의 기제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였다. 기업 규모나 아버지의 노동시간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나, 비공개 자료이거나 문항에 없어 활용할 수 없었다. 향후 아버지의 직장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면 집단별 변인 간 관계를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문항은 자녀와의 놀이 수준을 측정하는 것에 머무르기 때문에, 향후 이유식 만들기, 기저귀 갈기, 목욕시키기 등과 같은 어머니의 자녀양육 부담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료를 확보하여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우울 관계를 좀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친화제도 시행 및 이용 수준이 낮아 집단별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자료원은 2015년에 수집된 것으로, 가족친화제

도를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 직장 내 가족친화적인 분위기,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사용 정도,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과 태도 등 2022년인 지금과는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향후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한다면 본 연구에서는 밝혀내지 못한 집단별 가족친화제도의 효과를 검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3 절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다음 사항들을 제언한다. 첫째, 학력이 낮고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비(非) 가족친화적인 직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경제적 차이로 직장 안에서 가족친화제도를 누리는 데 불평등이 야기된다면,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육아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가족친화정책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가 없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가족친화제도의 시행과 이용이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을 증가시키는데 약간의 효과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원의 한계로 시행률과 이용률이 낮아서거나 일과 가족의 균형이라는 가족친화제도의 본래 목적 외 아버지 본인의 이직이나 승진 등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한 결과일 수 있다. 이직이나 승진 준비가 본인과 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러한 목적 외 사용은 가족친화제도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는 집단과의 차별을 더욱 심화시키고 나아가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므로 제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실제로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하는 <집단 3>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우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원의 한계 때문이거나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이들과 놀아주기 같은 보조 활동에 머물러 어머니의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감을 덜어주는 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더 많은 남성이 가족친화제도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사회에서 자녀 돌봄에 대한 남성의 전통적 역할이 변화했고 맞돌봄 문화가 확산하는 것으로 낙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아버지 양육참여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스스로 자녀양육의 보조적 역할을 넘어 주 양육자로서 돌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양적인 자료만으로 이러한 결과를 충분히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질적인 방법을 통해 변수 간 관계를 더욱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 가족친화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모색하는 한편, 개인의 의식 변화도 병행된다면 가족친화제도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참 고 문 헌

- Allen, T. D. (2001). Family-supportive work environments: The role of organizational percep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8(3), 414-435.
- Antecol, H., Bedard, K., & Stearns, J. (2018). Equal but inequitable: Who benefits from gender-neutral tenure clock stopping policies? *American Economic Review*, 108(9), 2420-2441.
- Barnett, R. C., & Baruch, G. K. (1987). Determinant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9-40.
- Behson, S. J. (2005).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formal and informal organizational work - family suppor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6(3), 487-500.
- Bosma, H., Stansfeld, S. A., & Marmot, M. G. (1998). Job control,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heart disease.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3(4), 402.
- Brotheridge, C. M., & Lee, R. T. (2005). Impact of work-family interference on general well-being: a replication and exten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12(3), 203.
- Byun, S. Y., & Won, S. Y. (2020). Are they ideological renegades? Fathers' experiences on taking parental leave and gender dynamics in Korea: A qualitative study. *Gender, Work & Organization*, 27(4), 592-614.
- Carlson, G. A., & Cantwell, D. P. (1980). Unmasking maske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 J Psychiatry*, 137, 445-449.
- Cho, S.-H., & Choi, M.-S. (2004). Development of an Inventory for Adolescent's Image about their Fathe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5(6), 53-68.
- Chung, H. K., Kim, K. H., Yeoum, S. G., Song, M. S., Ahn, O. H., & Lee, J. W. (2003). Family support, intention of pregnancy and antenatal self-care of pregnant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9(3), 319-326.
- Clark, S. C. (2000). Work/family border theory: A new theory of work/family balance. *Human relations*, 53(6), 747-770.
- Conrad, M., & Hammen, C. (1993). Protective and resource factors in high-risk children: A comparison of children with unipolar, bipolar, medically ill, and normal mother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4), 593-607.

- del Carmen Huerta, M., Adema, W., Baxter, J., Han, W.-J., Lausten, M., Lee, R., & Waldfogel, J. (2013). Fathers' leave, fathers' involvement and child development: Are they related? Evidence from four OECD countries.
- Downey, G., & Coyne, J. C. (1990).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an integr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08(1), 50.
- Feng, X., Shaw, D. S., Skuban, E. M., & Lane, T. (2007). Emotional exchange in mother-child dyads: stability, mutual influence, and associations with maternal depression and child problem behavior.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1(4), 714.
- Field, T. (1998). Maternal depression effects on infants and early interventions. *Preventive medicine*, 27(2), 200-203.
- Fletcher, J. M. (2009). Childhood mistreatment and adolescent and young adult depression. *Social Science & Medicine*, 68(5), 799-806.
- Fletcher, R. (2009). Promoting infant well-being in the context of maternal depression by supporting the father.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30(1), 95-102.
- Flouri, E., & Buchanan, A. (2003). The role of father involvement in children's later mental health. *Journal of adolescence*, 26(1), 63-78.
- Grzywacz, J. G., & Marks, N. F. (2000). Reconceptualizing the work - family interface: An ecological perspective on the correlates of positive and negative spillover between work and family.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5(1), 111.
- Hoffman, C., Crnic, K. A., & Baker, J. K. (2006). Maternal depression and parenting: Implications for children's emergent emotion regulation and behavioral functioning.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6(4), 271-295.
- Hong, K. H., & Jung, M. J. (200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fathers' childcare attitudes & linguistic patterns and development of pre-school children's sociability. *J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tion Administration*, 12(2), 237-260.
- Huerta, M. C., Adema, W., Baxter, J., Han, W.-J., Lausten, M., Lee, R., & Waldfogel, J. (2014). Fathers' leave and fathers' involvement: evidence from four OECD countri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Security*, 16(4), 308-346.
- Huh, B.-Y., & Han, K.-J. (2009). Father involvement in child-rearing and maternal depression during early childhood.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12(2), 131-146.

- Kim, J., & Lee, J. H.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rearing and mother's child rearing stress. *Korean J Child Studies*, 26(5), 245-261.
- LaRossa, R., & Reitzes, D. C. (1993). Continuity and change in middle class fatherhood, 1925-1939: The culture-conduct conne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2), 455.
- Lee, J. (2003). The childcaring stress of mothers of infant and toddler and its related facto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7(2), 207-216.
- Lee, J. S. (2003).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and mothers' childrearing stress. *J Early Childhood Education*, 23(3), 5-19.
- Lee, J. Y., & Jang, M. K. (2009).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de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s: The mediating effects of irrational beliefs in parenting.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9(2), 1-16.
- Lee, M. J., & Chung, K. M. (2016). Development of parent child interaction-direct observation checklist (PCI-D)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23(2), 367-395.
- Leung, D. W., & Slep, A. M. S. (2006). Predicting inept discipline: The role of parental depressive symptoms, anger, and attribu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3), 524.
- Lovejoy, M. C., Graczyk, P. A., O'Hare, E., & Neuman, G. (2000). Maternal de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0(5), 561-592.
- Månsdotter, A., Fredlund, P., Hallqvist, J., & Magnusson, C. (2010). Who takes paternity leave? A cohort study on prior social and health characteristics among fathers in Stockholm. *Journal of public health policy*, 31(3), 324-341.
- McBride, B. A., Schoppe, S. J., & Rane, T. R. (2002). Child characteristics, parenting stress, and parental involvement: Fathers versus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4), 998-1011.
- Mezulis, A. H., Hyde, J. S., & Clark, R. (2004). Father involvement moderates the effect of maternal depression during a child's infancy on child behavior problems in kindergarte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8(4), 575.
- Mezulis, A. H., Priess, H. A., & Hyde, J. S. (2011). Rumination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fant temperament and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

- s. Depression research and treatment, 2011.
- Misri, S., Kostaras, X., Fox, D., & Kostaras, D. (2000). The impact of partner support in the treatment of postpartum depression.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45(6), 554–558.
- Mullen, J., Kelley, E., & Kelloway, E. K. (2008). Health and well-being outcomes of the work–family interface. *Handbook of work–family integration*, 191–214.
- Mun, B. H. (2008). The differences of the children’s play characteristics and multiple intelligence according to father’s involvement in child-rear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Korea.
- Nepomnyaschy, L., & Waldfogel, J. (2007). PATERNITY LEAVE AND FATHERS’ INVOLVEMENT WITH THEIR YOUNG CHILDREN: Evidence from the American Ecls - B. *Community, Work and Family*, 10(4), 427–453.
- OECD, Publishing, O., économiques, O. d. c. e. d. d., & Rozwoju, O. W. G. i. (2002). *Babies and Bosses—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Volume 1): Australia, Denmark and the Netherlands (Vol. 1)*.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Hara, M. W. (1986). Social support, life events, and depression during pregnancy and the puerperium.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3(6), 569–573.
- Quittner, A. L., Glueckauf, R. L., & Jackson, D. N. (1990). Chronic parenting stress: moderating versus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6), 1266.
- Redshaw, M., & Henderson, J. (2013). Fathers’ engagement in pregnancy and childbirth: evidence from a national survey. *BMC pregnancy and childbirth*, 13(1), 1–15.
- Respler-Herman, M., Mowder, B. A., Yasik, A. E., & Shamah, R. (2012). Parenting beliefs, parental stress, and social support relationship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1(2), 190–198.
- Roggman, L. A., Moe, S. T., Hart, A. D., & Forthun, L. F. (1994). Family leisure and social support: Relations with parenting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Head Start parent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9(3–4), 463–480.
- S. B., B., C. A., Hungerford, A., Spieker, S. J., Mohan, R., & Blessing, J. S. (2004). The course of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and maternal sensit

- ivity as predictors of attachment security at 36 month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6(2), 231-252.
- Siberg, J., & Rutter, M. (2002). Nature-nurture interplay in the risks associated with parental depression. In S. H. Goodman, & I. H. Gotlib (Eds.),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Mechanisms of risk and implications for treatment* (pp. 13-3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imkin, C., & Hillage, J. (1992). *Family friendly working: new hope or old hype?* Institute of Manpower Studies.
- Sullivan, O., Coltrane, S., McAnnally, L., & Altintas, E. (2009). Father-friendly policies and time-use data in a cross-national context: Potential and prospects for future research.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24(1), 234-254.
- Tam, K. K., Chan, Y. C., & Wong, C. K. M. (1994). Validation of the parenting stress index among Chinese mothers in Hong Kong.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2(3), 211-223.
- Yoon, M. (2016). A narrative inquiry about parenting experience of fathers-Focusing on the family on father's parental leave. Unpublished master thesis, Myoungji University, Seoul.
- 강혜경. (2013). 남성 육아휴직자의 양육 경험과 성별관계의 변화: 남성 육아휴직자의 양육 실천의 경험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30(2), 133-167.
- 국회입법조사처. (2021). 육아 패널티의 현실,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개선 과제.
- 권석만. (2011). *인간관계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권혜원, 권순원. (2013). 일-가정 양립정책이 여성 관리자의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후원적 리더십과 조직문화의 효과를 중심으로. *산업관계연구*, 23(3), 89-117.
- 김미예, 박동영. (2009).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우울 및 언어적 학대. *아동간호학회지* 제, 15(4).
- 김상하. (1998). 아버지의 영아 양육 참여와 관련 변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욱, 강상준. (2018). 가족친화제도와 분위기가 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경로분석-상사와 동료의 지원을 매개효과로. *사회보장연구*, 34(1), 25-54.
- 김진욱, 권진. (2015).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사회정책*, 22(3), 265-302.

- 김화연, 오현규, 박성민. (2015). 공공 및 민간 조직의 가족친화제도가 여성 근로자들의 일-가정 갈등에 미치는 영향: 남편의 도구적 지지와 가족의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7(2), 483-513.
- 문혁준. (2004).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42(11), 109-122.
- 박금자. (1999). 중년기 여성의 우울 구조모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배은정, 김효영, 김수, 권은지. (2018). 아버지의 육아휴직과 가족건강에 관한 통합적 문헌고찰. 부모자녀건강학회지, 21(1), 20-27.
-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2022).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463.
- 서석원, 이대균. (2014).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9(2), 157-178.
- 손세희, 한창근. (2016). 가구소득이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과 부모 간 다집단 분석.
- 송다영, 장수정, 김은지. (2010). 일가족양립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직장내 지원과 가족지원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 안병철, 이숙현, 장은미, 정기선, 최은정, 김수영, 임인숙. (2005). 가족과 기업: 미국·영국·일본·한국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서울: 신정.
- 안재진. (2011). 부의 양육참여가 출산 후 초기 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부부관계의 질을 매개로. 한국아동복지학(35), 127-158.
- 원숙연, 박지원. (2009). 사회적 지원이 일-가족 갈등 및 일-가족 축진에 미치는 영향: 남녀 간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26(2), 3-32.
- 윤희진, 천세정, 이경옥. (2021). 유아 기질과 또래놀이행동의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2(5), 629-640.
- 이병훈, 김종성. (2009). 가족친화경영의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 산업관계연구, 19(2), 153-175.
- 이유나. (2009).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사회적 지원, 직업 만족도, 역할 갈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Publication Number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http://www.riss.kr/link?id=T11685318>
- 이정순. (2003).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성역할관과 아동관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7(4), 53-67.
- 이정자. (2021). 우울한 어머니와 아동의 문제행동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행동 조절효과. 놀이치료연구-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25(2), 33-44.
- 이진경, 옥선화. (2009). 첫 자녀 출산 여부와 가족친화제도에 따른 유배우 기혼 여

- 성의 취업 중단에 관한 연구. *조사연구*, 10(3), 59-83.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19).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수정).
- 정수빈, 배은경. (2022).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은 돌봄의 탈젠더화를 촉진할 것인가?: 2010년대 중반 이후 남성 육아휴직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8(1), 111-146.
- 정장훈, 조문석, 장용석. (2011).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과 디커플링이 조직성과 향상에 미치는 영향. *노동정책연구*, 11(2), 179-215.
- 조윤경, 민웅기. (2012).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실현과정을 통해 본 가족복지정책 이념의 재구조화. *생태유아교육연구*, 11(3), 29-56.
- 중앙일보. (202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48583>.
- 최옥주. (2016).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유아 사회성 간의 종단연구. *유아교육연구*, 36(3), 127-149.
- 최지은, 김현경. (2019).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가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최효식, 연은모, 권수진, 홍윤경. (2013).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간의 종단적 관계 분석.
- 통계청. (2022).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2.
- 허보윤, 한경자. (2009).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어머니 우울.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2(2), 131-146.

부 록

[표 1] 가족친화제도 시행과 어머니의 우울 사이에서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

경로		B	se	t	p	LLCI	ULCI	
가족친화제도 시행	→	아버지의 양육참여	0.0163	0.0068	2.4093*	.0161	0.003	0.0296
가족친화제도 시행	→	어머니의 우울	-0.0054	0.0101	-0.5295	.5965	-0.0253	0.0145
아버지의 양육참여	→	어머니의 우울	-0.1581	0.0409	-3.8696***	.000	-0.2383	-0.078

*p<.05, **p<.01, ***p<.001

가족친화제도 시행과 어머니의 우울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매개효과 검정을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각 경로의 유의성 검정결과 가족친화제도 시행은 아버지의 양육참여(B=0.0163, t=2.4093, p<.05)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친화제도 시행은 어머니의 우울(B=-.0054, t=-.5295, p>.05)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우울(B=-.1581, t=-3.8696, p<.001)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아버지 양육참여 매개효과의 Bootstrapping 결과(제도 시행)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Effect	BootSE	BootLLCI	BootULCI
가족친화제도 시행	아버지의 양육참여	어머니의 우울	-0.0026	0.0013	-0.0056	-0.0003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가족친화제도 시행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거쳐 어머니의 우울에 이르는 경로의 부분매개를 5,000번 재표집하였다. 분석 결과, 매개효과 계수는 -0.0026이고, 95% 신뢰구간에서 매개효과 계수의 하한값(LLCI)과 상한값(ULCI)이 -0.0056에서 -0.0003으로 나타났다. 두 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두 모형에서의 매개효과는 신뢰도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표 3] 가족친화제도 이용과 어머니의 우울 사이에서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

경로	B	se	t	p	LLCI	ULCI
가족친화제도 이용 → 아버지의 양육참여	0.0597	0.0194	3.0762**	0.0021	0.0216	0.0979
가족친화제도 이용 → 어머니의 우울	-0.0256	0.0292	-0.8765	0.3809	-0.0828	0.0317
아버지의 양육참여 → 어머니의 우울	-0.1566	0.0409	-3.8263***	0.0001	-0.2368	-0.0763

*p<.05, **p<.01, ***p<.001

가족친화제도 이용과 어머니의 우울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매개효과 검정을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각 경로의 유의성 검정결과 가족친화제도 이용은 아버지의 양육참여(B=0.0597, t=3.0762, p<.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친화제도 이용은 어머니의 우울(B=-.0256, t=-.8765, p>.05)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우울(B=-.1566, t=-3.8263, p<.001)에 부적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아버지 양육참여 매개효과의 Bootstrapping 결과(제도 이용)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Effect	BootSE	BootLLCI	BootULCI
가족친화제도 이용	아버지의 양육참여	어머니의 우울	-0.0094	0.0042	-0.019	-0.0024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가족친화제도 이용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거쳐 어머니의 우울에 이르는 경로의 부분매개를 5,000번 재표집하였다. 분석 결과, 매개효과 계수는 -0.0094이고, 95% 신뢰구간에서 매개효과 계수의 하한값(LLCI)과 상한값(ULCI)이 -0.019에서 -0.0024로 나타났다. 두 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두 모형에서의 매개효과는 신뢰도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매개분석으로 검정한 결과는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인 두 단계에 걸친 회귀분석과 같았다²⁾. 가족친화제도가 어머니의 우울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가족친화제도의 시행과 이용이 많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어머니의 우울이 감소되었다.

2) 두 연구 방법의 변수 간 관계의 검정결과는 같으나 그 수치가 다른 이유는 통제변수 때문이다. 두 단계에 걸친 회귀분석에서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단계별로 통제변수를 넣었지만, SPSS Process Macro Model 4 매개분석에서는 단계별 투입이 되지 않아 수치의 값이 다를 수 있다.

Abstract

The Effects of Family-Friendly System on Mothers' Depression in the Workplace of Fathers with Children

Ilhoon Jung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Every human being is born and cared for, and the full care of the mother is important for the baby born. Many mothers with young children have experienced depression due to parenting, and their children are at high risk of developing various problematic behaviors. In other words, mother's depression is an important risk factor for child-rearing, so it needs to be treated early. Although there have been considerable studies that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rearing reduces mothers' depression and family-friendly system increases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rearing, no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objectively measure their relationship. In order to activate the male family-friendly system, scientific and empirical research is needed to support the effects of the system. Therefore, this study explored the effects of the male family-friendly system using panel data at the national level.

The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from 1,368 households whose fathers were employed (including leave of absence) among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8th year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 In order to reduce the heterogeneity of the research group, it was divided into <group 1> which is not implemented, <group 2> which is not implemented but used, and <group 3> which is implemented and used.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friendly system and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rearing,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rearing and mother's depression were confirmed, and the effect of male-friendly system on mother's depression was confirmed by synthesizing the resul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higher the level of implementation and use of the family-friendly system in the father's workplace, the higher the level of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rearing in the whole subjects. Second, the higher the level of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the lower the mother's depression in the whole subjects and <group 2>.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 more the implementation and use of the family-friendly system in the father's workplace, the higher the level of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rearing and the lower the mother's depres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lower the education level and the lower the household income, the more they work in a workplace that does not implement the family-friendly system. Careful policy design is needed to prevent workers in blind spots due to socioeconomic differences.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family-friendly system does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rearing. It may be caused by non-purpose use of family-friendly system such as turnover or promotion, so policy efforts are needed to prevent this. Third,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rearing did not affect mother's depression in <group 3> using family-friendly system. Since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rearing is only an auxiliary role such as playing with children, it

may not relieve the burden of mother's child-rearing, so it is necessary to change personal consciousness so that father can take care of himself as the main caregiver. However, there is a limit to fully explain these results with quantitative data alone, so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through qualitative methods in the future. In other words, the effect of the family-friendly system will be greater if the change of individual consciousness is combined with the policy search for the activation of the family-friendly system.

keywords : family-friendly system, Mother's depression,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regression analysis

Student Number : 2017-27737